

TV 2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스페셜 30 생방송 세상의 아침 1~2부	6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출발! 모닝와이드 1~2부
50 인강극장		7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일출수 없어>	15 KBC 뉴스지금 40 출발! 모닝와이드 3부
25 아침마당	00 KBS 8 아침 뉴스타임	8 30 특집다큐 <老, How? (1)>	40 아침 연속극 <녹색마차>
30 KBS 뉴스	00 아침드라마 <정화홍련> 30 여유만만	9 30 기분 좋은 날	20 좋은 아침
00 뉴스특보 남북이산 가족상봉 50 TV동화 행복한 세상	40 지구촌 뉴스	10 45 MBC 뉴스	40 SBS 뉴스
55 바른말 고운말	00 월화 미니시리즈 <공주가 돌아왔다>(재)	11 00 남랑특집 미니시리즈 <맨땅에 헤딩>(재)	00 현장리포트 사람세상(재)
00 KBS 뉴스12		12 00 MBC 뉴스와 경제 40 희망특강 파랑새 스페셜	00 뉴스와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00 KBS 결적선 <내사랑 금지역업>(재)	10 일요스포츠 쇼	1 35 통일전망대	00 네트워크현장 00 화이팅 보인자
00 KBS 뉴스 10 KBS 중계석 오페라 나비부인	10 KBS 네트워크-춘천	2 15 잉크로 희망나눔 무개시 스페셜	00 SBS 뉴스 10 인류의 도전 세계최고의 현장
	00 2TV 스페셜 <1대 100>(재)	3 05 앙코르 MBC 프리인 (자유와 열정의 또다른 이름 Rock)	10 KBC 열린토론회
00 KBS 오늘의 경제 10 사랑의 가족 35 TV유치원 파파파니	10 후토스 하늘을 나는 집 40 꼬마신선 토요일	4 00 뽀뽀뽀 아이조아 30 먹거리와 짬뽀	00 일지매
00 KBS 뉴스 5 15 동물미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10 2TV 하이라이트 <비타인>(재)	5 00 MBC 뉴스 20 요리보고 세계보고 베스트 35 생방송 전국시대	00 SBS 뉴스 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테이스페셜(재)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10 리빙쇼 당신의 여섯시	6 30 MBC 뉴스 50 TV 전국기행 <자전거로 떠나는 바다여행>	25 생방송! KBC 투데이
00 KBS 뉴스네트워크 30 우리말 겨루기	10 무한지대	7 45 일일시트콤 <지붕뚫고 하이킴>	05 시사타자 따따부다 15 일일 드라마 <두 아내>
25 일일연속극 <다함께 차차차>	00 KBS 8 뉴스타임 20 KBS 8 뉴스타임-광주전남 30 30분 다큐	8 15 일일연속극 <법치>	00 SBS 8 뉴스 25 KBC 8 뉴스 45 SBS 스포츠 뉴스 50 특집 솔로몬 법정
00 KBS 뉴스 9	00 위기탈출 넘버원 55 월화미니시리즈 <공주가 돌아왔다>	9 00 MBC 뉴스데스크 50 MBC 스포츠 뉴스 55 장사 48주년 특별기획 <선덕여왕>	55 SBS 월화드라마 <드림>
00 가요무대		10 55 장사 48주년 특별기획 <선덕여왕>	
00 KBS 뉴스타임 30 오라차차 녹색지대	05 미녀들의 수다	11 15 문화콘서트 난장	05 아심만만 2
15 KBS 뉴스 25 스포츠 스포츠 35 비바 K리그	15 생방송 시사 360 45 한국 한국인	12 25 MBC 뉴스 24 35 스포츠 특선 대통령기 전국역권대회	15 나이트 라인 55 2009 FIFA U-20 월드컵 H/L ①:35 2009 FIFA U-20 월드컵 (이탈리아:트리니다드토바고)

# 가요계 '아이돌만의 리그'

## 인터넷 음악 소비 주원인...중장년층 음악 '사각지대'

국내 대중음악계가 최근 몇년 사이 '아이돌만의 리그'로 전락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 가요계만 들여다봐도 각종 음악사이트 인기 차트에서 10~20대의 '어린' 가수들이 특수를 누렸다. 소녀시대, 브라운아이즈걸스, 투에니원, 포미닛 등 여성그룹을 필두로 지드래곤까지 차트 상위권에는 이들의 노래만 들어 있다. 신세대 가수들이 춤, 노래 실력을 갖추고 알찬 음악을 만든다는 점에는 가요계 종사자와 음악팬들이 수긍한다. 하지만, 마치 국내 대중음악 시장은 10~20대 가수들과 그들의 노래만 만들어지는 듯 보인다. 이달 열린 '아시아 송 페스티벌'의 한국 대표도 비방,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투에니원 등 아이돌 그룹 차지였다. 이후 각종 포털 사이트에는 '한국 대표 가수는 아이돌이냐'는 댓글이 올라왔다. 중장년층을 위한 음악이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올해만 해도 이미 자가 101곡이 담긴 50주년 기념 음반, 인순이는 17

집, 산울림 출신 김창완이 만든 김창완밴드가 1집을 냈다. 그런데 왜일까. 많은 대중음악 관계자들은 음반에서 인터넷으로 음악을 소비하는 방식이 변하면서 중장년층을 위한 음악이 '존재감'을 잃었다고 입을 모은다. 김종국의 '한남자', 윤하의 '비밀번호 486' 등을 작곡한 황찬희 씨는 "인터넷에서 음악을 다운로드 받는 주류층은 10~20대"라며 "그 때문에 젊은 층이 선호하는 음악이 음악사이트의 인기차트를 장악하면서 시대를 주름잡는 '핫 트랙'으로 여겨진다. 디지털 음악 환경 속에서 마치 대중가요는 젊은이들의 음악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많은 중년 가수들도 "가요 프로그램 PD들이 음악사이트 인기차트를 참고해 가수들을 출연시킨다"며 "예우상 방송 순서에 간신히 낀 우리들은 속수무책 정도"라고 불만 목소리다. 한 음반기획사 대표는 "밀



리안셀러를 기록하며 한 시대를 풍미한 가수들이 음반을 내면 실패하는 것도 인터넷의 영향이 적지 않다"며 "이미 음반 시장은 고사한데다, 이들의 노래는 인터넷에서 젊은 층에 팔리지 않으니 인기차트에도 오르지 못한다. 결국, 가수는 과거의 영광을 뒤로한 채 빠르게 하락세를 걷는 듯 보인다"고 말했다. 그 때문에 음반제작자들도 젊은 층을 겨냥한 음악을 만드는 데만 몰두하니 '솔림' 현상은 악순환이 된다. 여성그룹이 포화상태라고 불평하면서도 예프엑스, 티아라, 시크릿, JQT, 램 등 하반기에도 여성그룹이 더 쏟아진다. 음반 시장이 고사하고 인터넷과 모바일로 매체 환경이 변한 것은 세계적인 흐름으로, 일본도 돌파구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연필뉴스>

**제18회 光日盃**  
광주 전남 직경비둘기대회

**지옥문 들어선 허우석 5단**  
4회전 3국 6보 (110~125)

白 허우석 5단    黑 박광주 5단  
<광주 시청>    <포스코>

바둑을 두다보면 생각에 빠져들어 감각 박탈 때가 있다. 어려운 수는 보면서도 아주 쉬운 수를 놓치는 때가 종종 있는데 허우석 5단이 중요한 순간에 감각수를 두고 말았다. 백 ◎로는 먼저 절대적으로 흑 ▲ 자리에 선수로 막고 발려야 했는데 이 수를 감각하는 바람에 승기를 잡았다 싶은 순간 지옥문으로 들어서고 만 것이다. 박광주 5단이 얼씨구나 하고 거꾸로 흑 ▲로 꼬부리자 그때서야 '아차' 싶은지 허우석 5단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한다. 이곳은 18급도 놓치지 않을 절대수였던 것을 역으로 당해 버렸다.

빼어난 일침에 한없이 자책을 해대던 허우석 5단은 하는 수 없다는 듯 110으로 물러섰는데 이 차이는 실로 컸다. 백이 여유있게 살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목숨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몰락했다. 그러나 이때라도 사실 냉정할 필요가 있었다. 총격을 받은 허 5단이 110으로 석점을 살린 것이 '일침에 댄친' 격으로 상처를 키웠다. 이 수로는 쓰러지지만 석점을 버리고 111에 져서 후일을 도모해야 했던 것이다. 백 118에 물러설 수밖에 없 흑 125까지 백이 매우 불리한 싸움이 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EBS		
06:00 EBS여영회화 365	09:45 올리비아	15:40 그림 그려줘, 루이(재)
06:30 세계대미기행	10:00 60분-부모	15:50 개미랑 부카제(재)
07:10 리틀 프린세스	11:00 최고의 요리비결	16:00 당동영 유치원(재)
07:25 만능수리공 매니	11:30 다큐 프리인	16:20 올리비아(재)
07:50 척척폭죽 처갓터	12:20 EBS ECO 특강	16:35 척척폭죽 처갓터(재)
08:00 당동영 유치원	13:10 요리비전(秘傳)	16:45 플랜더스의 개
08:20 그림 그려줘, 루이	13:40 외국인용 한국어(초급)	17:10 워드 월드
08:30 락캐비 루	14:10 문화사랑 e	17:35 신나는 과학 애니메이션 <Why?>
08:40 키득키득 실험실	14:15 두비두뽀 몬스터 하우스	17:50 <생방송>특! 특! 보너하니
09:00 개미랑 부카제(재)	14:35 남자와 나라, 코코몽	18:50 뽀뽀와 웃기는 녀석들 <상어와 나-인간의 오만과 편견>
09:10 뽀뽀뽀 뽀로로 시즌3	14:35 달랑리 도라리(재)	19:10 스티워드-클론전쟁
09:15 방귀대장 뽀뽀이	15:00 또또비를 찾아(재)	00:00 문화사랑 e
09:30 디브와 노래해오	15:10 방귀대장 뽀뽀이(재)	00:05 지식채널 e(재)
09:35 또또비를 찾아라	15:25 알뜰달록 콩콩이	00:10 EBS 스페이스-공감
		20:30 EBS 뉴스
		20:45 지식채널 e
		20:50 세계대미기행
		21:30 한국기행 <청송>
		21:50 다큐프리인 <마리온 이야기>
		22:40 요리비전(秘傳)<올림픽 약소>
		23:10 다큐 10+
		23:10 상어와 나-인간의 오만과 편견
		00:00 문화사랑 e
		00:05 지식채널 e(재)
		00:10 EBS 스페이스-공감

  

EBS플러스1	EBS플러스2
07:00 EBS 포스(수확 1)	08:00 EBS TV 중1(2학기) <국어>
07:50 EBS 기본과 특별한 <국어(하)>	08:40 " <수확 1-2>
08:40 " <과학>	09:20 EBS TV 중1 퍼펙트 체크업 <국어>
09:30 EBS 학습자료실 클리닉 사이언스	10:00 방귀대장 뽀뽀이
09:35 TV로 보는 박물관	10:15 당동영 유치원
09:40 EBS 수능 대비 고2 특강 <언어영역>	10:35 알뜰달록 콩콩이
10:30 세계대미기행	10:50 또또비를 찾아라
12:00 EBS 내신 6급 <국어(하)>	11:00 요리조리광명
12:50 " <물리>	12:00 EBS TV 중2(2학기) <국어>
13:40 EBS 기본과 특별한(재) <국어(하)>	12:40 " <수확 8-14>
14:30 " <과학>	13:20 EBS TV 중2 퍼펙트 체크업 <2학기> <국어>
	14:00 " <수확 8-14>
	14:00 생방송 방과후 영어
	14:40 EBS TV 중2(2학기) <도덕>
	16:30 외국인용 한국어(초급)
	17:00 EBS 초등 친절한 선생님 <국어>
	17:30 " <국어 3-2>
	18:00 " <국어 4-2>
	18:00 " <국어 5-2>
	18:00 " <국어 6-2>
	19:00 EBS TV 중1(2학기) <국어>
	19:40 " <수확 1-2>
	20:20 EBS TV 중1 퍼펙트 체크업 <2학기> <국어>
	21:00 EBS TV 중2(2학기) <국어>
	21:40 " <수확 8-14>
	22:20 EBS TV 중1 퍼펙트 체크업 <2학기> <국어>

굿모닝 잉글리쉬	오하오우 니혼고	니하오 쑹구워	한자 이야기
<p><b>How much do you want for it?</b> 얼마를 원하세요?</p> <p>A: What are you selling? B: I'm trying to sell my computer. A: How much do you want for it? B: About \$1000. A: I'll give you \$950. B: OK, It's a deal.</p> <p>A: 무엇을 파시는 거죠? B: 컴퓨터를 팔려고 하는데요. A: 얼마를 원하세요? B: 1천불 정도입니다. A: 950불 드리죠. B: 좋아요, 그렇게 하죠.</p> <p>* 그 차 팔려고 하세요? = Do you want to sell the car?</p>	<p><b>このデパートはいつも賑(にぎ)やかですか</b> 이 백화점은 늘 붐빔니까?</p> <p>A: このデパートはいつも賑(にぎ)やかですか。 B: ええ、いつも多(おお)くの人たちが賑(にぎ)やかです。 A: それでは、交通(こうつう)もずいぶん便利(べんり)ですね。 B: ええ、で、昔(むかし)はあまり便利(べんり)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p> <p>A: 이 백화점은 늘 붐빔니까? B: 예, 늘 많은 사람들이 붐빔니다. A: 그럼, 교통도 무척 편리하겠군요. B: 예, 하지만, 옛날에는 그다지 편리하지 않았습니니다.</p> <p>* デパート: 백화점 * 賑(にぎ)やかだ: 붐빔다, 북적거리다 * ずいぶん: 무척, 매우</p>	<p><b>濁不清</b> 잘 안들리다</p> <p>A: 怎麼(怎麼)聽(聽)不清楚? 怎麼(怎麼)聽(聽)不清楚? (안 들려요, 안 들려요) B: 聽(聽)不清楚(聽)。 怎麼(怎麼)聽(聽)不清楚? (안 들려요, 안 들려요) A: 把(把)聲音(聲音)小(小)一點(一點)好不好? 聽(聽)不清楚(聽)。 怎麼(怎麼)聽(聽)不清楚? (안 들려요, 안 들려요) B: 好(好), 聽(聽)一下(一下)。 怎麼(怎麼)聽(聽)不清楚? (안 들려요, 안 들려요) A: 為什麼(為什麼)聽(聽)不清楚? O: 因為(因為)聲音(聲音)太小(太小)了。 A: 소리가 조금만 클까? B: 음, 청취할까.</p> <p>濁(濁) { 不清楚 }    不清楚 { 濁 }</p>	<p><b>牛刀割雞(우도할계)</b> 소우, 칼도, 뿔할, 닭계</p> <p>우도할계(牛刀割雞)는 소 잡는 칼로 닭을 잡는다는 뜻으로, 큰일을 처리할 기능을 작은 일을 처리하는 데 쓸데없는 말이다.</p> <p>하루는 공자(孔子)가 마을 곳곳에서 거문고 소리에 맞추어 노래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들었다. 자유(子游)가 그곳의 읍재로 있으면서 공자에게서 받은 예악(禮樂)을 가르쳐 백성들을 교화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공자는 흐뭇한 마음에 빙그레 웃으며, "닭을 잡는 데 어찌 소 잡는 칼을 쓰리요?(割雞用牛刀)"하고 물었다. 이 같은 작은 고을을 다스리는 데 무슨 예악이 필요하냐는 뜻이었다. 이에 자유가 "이전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君)가 도(道)를 배우면 사람을 사랑하고, 소인이 도를 배우면 부리가가 쉽다고 하셨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여기서 공자가 "닭을 잡는 데 어찌 소 잡는 칼을 쓰셨는가"라고 한 것은 제자인 자유가 나라를 다스릴 만한 인재인데도 무성과 같은 작은 읍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는 뜻으로 한 말이다.</p> <p>출전 : 『논어(論語)』(양화편(陽貨篇)) * 급수 : 한자능력검정 5급, 중3급, 4급</p>
<p>&lt;동아 외국어학원 제공&gt; www.donga.tv ☎ 222-6253</p>	<p>&lt;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gt; http://kglobal.wo.to ☎ 228-2545</p>	<p>&lt;리틀차이나 중국어 전문학원&gt; www.littlechina.co.kr ☎ 233-9582</p>	<p>&lt;대능출판&gt; www.daeneung.com</p>